

김정은 시대 <시대어>로 본 문명강국의 이상과 현실: 사회주의문명국의 진로(進路)*

강채연**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시대어를 문명강국의 담론 속에서 살펴보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진로를 재해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정권에서 시대어는 선군시대어로, 다소 위계적인 명령체계에 의한 시대성과 혁명성을 나타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사회경제분야에서의 시대성과 책임성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둘째, 시대어의 본포는 정부 · 개인 · 기업 · 관료 · 지역 등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책임 · 관계 · 정서 · 문화 · 참여 · 호소 등을 유인하면서도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시스템개혁을 반영하는 선에서 나타난다. △산업 · 기업 간 기술협력, △인민중심 · 전문화된 관료개혁, △선진국형의 교육문화 · 생활문화, △국제표준에 의한 상품경쟁력 등이다. 셋째, 기존 전통이나 시스템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민족성과 사회주의의 본태를 살리면서도 세계화 · 정보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사회주의문명국의 목표다. 이를 위해 인민중심의 정책 · 참여 · 동원 · 자극이 필요했고, 이러한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시대어의 역할이다. 이는 시장화 속에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주민들의 문화의식수준에 부합하는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도부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체제선전이나 홍보의 측면보다는 물질적 자극에 의한 주체적 참여와 경쟁력을 유인하고 실질적인 민생개선이 환영받을 수 있는 구조, 즉 국가와 시장의 공존 가능한 기술적, 구조적, 환경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 **핵심어:** 시대어, 문명, 사회주의문명국, 사회경제, 세계화, 정보화

* 이 연구는 2021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chhong007@skku.edu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시대어의 의미를 문명 혹은 문명강국의 담론 속에서 살펴보고, 국가이상과 현실구조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진로를 재해석한다.

2018년 북한 비핵화회담의 등장과 함께 신한반도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는 남북 간 평화변영에 대한 희망,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에 대한 물꼬를 틀었다.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남북관계의 신 협력 및 평화프로세스들이 정부,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영역들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정치·군사적 요인들에 둘러싸여 합리적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자력>과 <인민>중심의 독자적인 생존전략들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김정은 집권 10년의 발전전략들에는 국제화·세계화·선진화에 대한 욕망과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있고, 그 메시지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문명시대와 사회주의문명국이다. 사뭇 거창하고 추상적인 이 메시지들의 유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목표나 희망, 욕망조차 없다면 미래는 더더욱 암울한 것이다. 개인에 앞서 국가도 마찬가지다. 북한지도부 차원에서 이러한 욕망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독창성과 함께 북한사회의 시장화·정보화에 따른 빠른 변화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다.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전통적인 관료문화, 기업과 주민의 사회적 책임과 질서, 사회주의적 도덕과 정신문화에 대한 고민이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국가전략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바로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문명시대, 그곳에는 낡은 질서와 제도에 대한 개혁,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희망과 목표에 더하여 세계적 추세에 대한 욕망의 분출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문명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일까?

앞서 2012년 정권 출범과 함께 등장한 사회주의문명국은 언론과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해석을 동반했다.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에서 문명의 의미는 연구자들의 주관적 욕망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문화예술정책과 서구의 근대문명 사이를 오가며 통치방식의 외연성을 확장하는 데 그친다. 북한의 문명담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연구들은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변화들을 반영하거나 그 이면에 내재된 통치술을 평가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연구자는 김정은 시대 문명강국의 의미를 동 시대에 드러난 시대어를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명과 시대어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문명국으로서의 북한의 발전전략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에서 이른바 시대어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미를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즉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와 함께 등장하여 주로 정치적 메시지로 통용되었다면, 김정은 시대에서는 주로 사회, 경제, 문화, 과학부문들로 그 내연성을 확대하고 훨씬 더 많이 표출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북한의 통치담론 연구들에서 통상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이데올로기나 수령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담론보다 언어적 수단으로서의 시대어를 또 다른 통치담론의 측면에서 주목한 것이다. 둘째,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의 시대어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실질적인 ‘문명의 바람’이나 ‘북한문명’의 내적 속성으로 보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다. 셋째, 통일시대 남북언어연구나 발전전략연구에 있어 새로운 연구방법론적인 시각과 다양성,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범위와 대상은 김정은 집권 10년(2012-21) 기간 『노동신문』 기사들에서 시대별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경제분야의 〈시대어〉들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시대어들은 북한이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

통신』 기사들과 영상매체, 기타 사회과학부문 정기간행물들에서 직접 〈시대어〉로 규정하고 있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시대어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서 해당 시대어를 어원(語源)으로 하는 전략용어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먼저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분석한다. 둘째, 언어적 수단으로서 시대어의 의미와 사회적 관계를 사회학적·북한적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김정일·김정은 정권에 이르는 동안 시대어의 역할과 위상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김정은 시대 시대어와 문명의 관계를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경제분야에서 대표적인 시대어의 유형과 역할을 발전전략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시대어들을 경제와 사회의 두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시대어들을 주요 경제발전노선과 정책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경제 분야는 5가지 정책유형(자력자원, 속도, 자금자족, 브랜드화, 국산화)으로, 사회분야는 4가지 정책유형(교육, 보건, 문화, 인민)으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시대어들을 양적 데이터화하고, 질적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 시대어의 등장, 소멸, 증감도에 따른 통계데이터 분석, △역할과 의미 등이다. 두 번째로 시대어와 〈문명〉담론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문명강국’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시각화모델을 구축한다. 넷째, 북한의 발전전략과 남북관계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질적 접근법을 활용한 통계분석과 비교분석방법이 적용된다. 단계별로 △북한문헌을 이용한 통계분석, △국내문헌과 북한문헌과의 비교분석이다. 통계분석은 『노동신문(2012-20)』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해당 시대어들의 월별, 연도별 언급빈도수와 소멸관계, 텍스트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용된다. 연구의 특성상 1차 자료에는 『노동신문』 기사들을 중심으로 『민주조선』, 『청년동맹』, 『조선사회과학협회』,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경제연구』, 『조선녀성』, 『조선중앙통신』, 『내나라』 등을 포함하여 북한 공식매체·전문학술지·단행본 등 북한도서들이 활용된다. 2차 자료로는 국내외 주요 연구보고서들과 정책보고서, 연구논

문, 기사 등 관련 자료들이 질적연구 및 비교연구자료로 포함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지금까지 북한의 통치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통상적으로 다뤄진 핵심주제들은 주로 이데올로기(주체사상, 선군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 민족주의(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국가주의(우리국가제일주의), 수령주의(김일성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여기에 김정은 정권 초기에 등장한 사회주의문명국담론은 김정은 정권의 독창성과 통치전략을 추적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사회주의문명국담론은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통치담론이나 수령주의, 국가주의에 내재된 국가의 전략적 목표, 그 정체성을 반영하는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성을 반영한 담론으로, 〈새로운 북한〉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주의문명국담론을 중심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의식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분석한다.

학계에서 사회주의문명국담론은 주로 문화적 공간에서의 해석을 통해 다뤄진다. 일례로 사회주의문명국은 ‘개인적 욕망의 부정적 산물’로 평가된다(한재현 2016, 165; 김성수 2015, 141-142). 이 때문에 2012-2014년 사이 평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도시건설(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로 평양 중심의 문명국가건설이라는 의미로만 종종 해석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문명에 대한 인식도 서구식 사고에 머물러 그 의미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시사저널 2018/01/29). 한마디로 전체주의, 억압통치와 같은 담론들과 기성이론들이 전제하는 상태에서 북한의 문명담론을 해석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문명담론은 긍정과 부정의 시각에서 분명하게 엇갈린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문명담론이 서구적 근대성이론이나 정체성에 매혹된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권력의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실천

수행의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다(한재현 2016, 161-179). 또한 북한에서 문명의 담론이나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문화적 변화의 의미를 사상의 경직성보다는 창조성과 독자성이 부여된 현대화-세계화의 문화적변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정영철 2017, 302).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문명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내세워 국가의 기획은 은폐하고 국가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다(강민정 2015, 145-174; 김성수 2018, 74-79).

사회주의문명국담론은 때때로 문화정책의 목표로 간주되고 ‘높은 문화 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박영자 2018, 247). 그러나 시대어로 보는 문명의 속성은 경제·문화·과학·교육·보건 등의 전 분야들에 함축되어 있으며 시간의 연속성과 함께 확장성을 나타낸다. 특정분야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들에서 확보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부여하고 있다. 그 시대어의 중심에는 〈인민〉이라는 핵심주제가 자리하고 있다. 일례로, 명제품·명상품·명상표, 선편리성·선미학성, 멋쟁이와 같은 시대어들은 경공업분야에서의 국산화정책의 목표나 발전전략, 결과론적 의미를 반영한다. 노동자궁전, 노동자호텔, 별세상과 같은 시대어들은 2014년에 등장하여 노동환경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유인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탄광과 광산 생활문화공간들에서는 문명의 별천지(2015)가 시대어로 등지를 틀었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양어혁명(2015)이 등장하면서 이채어경(2015)이 물고기보물산·물고기바다(2016)를 이끌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들에서는 인재중시(2018), 인재전략(2021), 인재육성(2021)과 같은 시대어들이 인재와 과학기술의 전략적 노선들을 이끌고 있다. 멸사복무(2015), 인민사수전·인민복무전(2016), 친인민적·친현실적(2018), 심부름꾼당(2021)과 같은 시대어들은 〈인민〉을 매개로 인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 분야들에서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시대어를 어원으로 또 다른 시대어들이 정책용어로 재생산되고 있다. 예컨대 강성대국과 사회주의문명국이 등장한 이후로는 체육강국(2012), 만화영화대국(2014), 백두산대국(2012), 인재강국(2014), 청년강국(2015) 등이 등장한다. 경제분야에서 2016년 자강력제일주의가 등장한

이후로는 자력부강(2018), 자력번영(2019)과 같은 시대어들이 등장했다. 최우선·절대시(2012), 수입병(2014), 명상품·명제품(2014), 선편리성·선미확성(2014)이 등장하면서 국산화, 경영절약, 기업절약, 재자원화, 절약형, 경험교환운동 등과 같은 정책용어들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등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대어는 동 시대의 전략과 현실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시대별 시대어들이 사회경제분야들에서 어떠한 위계관계에 의해 등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만, 나름대로 시대어와 문명 간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대어들은 2016년을 전후로 폭발적으로 배태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분야들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 시대어의 의미는 단순한 사회경제적 통치담론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그 시대어들을 통해 유인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 그리고 통치전략으로서의 의미가 보다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어를 통해 사회주의문명국의 속성을 보다 미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시대어를 언어적 수단으로서, 하나의 통치전략 차원에서 조명한 연구는 부재하다. 다만 국가적 차원의 이러한 시대어들이 갖는 사회경제적 효용성, 그리고 주민수용성에 따른 양적·질적 분석은 북한 내부접근의 제한성으로 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시대어의 역할과 의미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전략과 노선을 파악하는데 한정한다.

III. 시대어란 무엇인가

1. 시대어의 의미와 사회적 관계

언어는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이다(김상배 외

2002, 2). 그리고 남북한 용어차원에서 언어적 수단으로서의 시대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한국어사전에에도 아직 해석된 바 없다. 다만 국어사전에 북한어로서 ‘과거의 일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기록돼 있을 뿐이다.¹⁾ 이는 역사어의 한 형태로, 시대어의 사전적 의미를 ‘지나간 역사적 시기에만 있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휘’로 표기했던 북한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노동신문 2011/09/28). 이러한 역사어로서의 시대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다. 단순 역사어에서 역동성과 현실성, 시대성과 혁명성을 반영하는 언어적 재해석과 재생산의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따르면, 역사어는 많은 경우 ‘사회제도나 낡은 생활방식, 풍습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역사어에는 지난 역사 속에서의 사회정치적 관계와 경제관계, 문화도덕, 생활방식, 풍습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주로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대어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러한 대상들의 소멸과 함께 극히 드물어진 결과 쓰이지 않거나 잘 쓰이지 않게 된 것들’이다(진정철 2004). 결국 역사 속에서의 시대어들은 그 시대가 지나면 저절로 소멸되거나 의미가 축소되기 마련이라고 주장한다(리호경 2006). 이는 2000년대 초 선군정치와 함께 등장했던 선군시대어의 영원성(永遠性)을 정의하기 위해 고안된 논리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시대어에 대한 의미가 사회성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해석되고 있다. 즉 시대어를 ‘생활과 투쟁 속에서 태어나 널리 쓰이면서 당시의 시대상과 민심, 경제적 변혁 등을 방불하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역사어인 동시에 한 시대를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채희원 2013; 노동신문 2012/02/18).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다는 하나의 의미로 시대어를 단순화한다면, 그 시대어에 내재된 속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시대어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언어적 수단과 사회적 관계의 속성측면에

1)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C%8B%9C%EB%8C%80%EC%96%B4>(검색일: 2021/6/20).

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언어의 기능은 자기표현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어를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 주요 목적으로 정의되지만, 북한에서의 사전적 의미는 과학과 기술발전, 문화의 민족성을 특징짓고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 자주적, 창조적 생활에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종섭 1997; Austin 197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섬세한 감정표출에 심오한 정신, 가상의 세계를 쉽게 표현하거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다(우윤식 2006, 31). 때문에 언어는 상호작용관계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요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언어가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지시, 요구, 명령 등을 수행(우윤식 2006, 41-48)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적 환경이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언어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새로운 언어의 발화는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맥락 속에 사람과 사회 혹은 사회구성원들이 취하고자 하는 원칙이나 방향성에 따라 정치적·정책적 요구와 같은 여러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다(블로쉬노프 2005, 145-149). 즉 언어는 사회·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의 지속적인 생성과정이고, 사람들의 활동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련의 법칙들을 잉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의 발상은 그것을 구성하는 규범이나 가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블로쉬노프 2005, 169).

연장선상에서 시대어는 그 시대의 정서적 영향에 크게 좌우된다. 정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매력, 각성, 책임에 관한 문제다. 여기서 각성과 책임은 상호의존적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에 비해 시대정서 및 감정, 사회적 규범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Martin et al. 2009, 1575-1578; Schroder et al. 2001, 87-90; Barrett and Russell 1999, 10-14). 따라서 인간과 사회활동에서 시대어가 갖는 사회경제적 상호작용의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시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고 사고나 감정을 생성하

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정정혜 · 이양 2015, 284-186). 이는 새로운 어휘의 객관적인 속성과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 혹은 의미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둘째, 시대어는 동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 언어(symbolic language)’인 동시에 희망, 욕망, 목표, 바람 등의 의미를 반영한다.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어휘를 낳는다(주지휘 2007). 인간과 사회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고나 인식을 창조하는 수단인 동시에 이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알렉산드르 아파나시예비치 2016, 189). 셋째, 시대어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 감성적 · 이성적 호소력을 지닌다. 즉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객관적 이해, 짙은 호소력과 감정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대어의 발상자체가 국가와 개인,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과 규범적 논리의 발화행위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단한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블로쉬노프 2005, 82). 넷째, 따라서 시대어는 무수한 정책의 바다 속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내고, 내면에 깔린 의중을 읽어냄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技術)이다. 한편으로는 큰 틀에서 동 시대 발전전략의 모체(母體)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추론은 이른바 시대어에 녹아있는 변화의 작은 메시지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의미를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북한에서 시대어의 역할과 위상변화

사실상 북한에서 학술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시대어에 대해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김정일 시대 선군시대어가 등장하면서 북한문화어연구차원에서, 그리고 선군시대어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조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실제로 2001년 『노동신문』에서는 김일성시대에 등장했던 오곡백과, 청산리정신 · 청산리방법, 일땅백 등 특정 언어들을 ‘노동당시대에 생겨난 시대어’로 통칭한 데 이어, 2004년부터 문화어연구 및 비교차원에서 시대어 및 역사어, 선군

시대어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했다(진정철 2004; 정채순 2005; 우철남 2006; 리호경 2006; 주지휘 2007). 그리고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을 통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시대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다.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의 선군시대어는 시대성과 혁명성이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반영한다. 내면 확장차원에서 시대성을 반영하는 선군시대어들은 사상, 정신, 경제, 통일 분야로 구분될 수 있고, 혁명성을 반영하는 시대어들은 수령관, 신념, 단결을 의미하는 선군시대어들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등장한 김정일 시대의 시대어들을 적용대상과 분야에 맞게 분류하면 4가지 체계(통일부문 제외)로 함축할 수 있다. △위대성, △선군, △시대정신, △사회경제차원이다(노동신문 2001/03/01; 2003/10/18; 2004/02/22; 2004/06/19; 2004/08/21; 2004/08/21; 2010/12/24; 2011/02/11). 대부분의 선군시대어들은 2002-2004년 사이 선군경제건설노선의 출발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인용되거나 등장한다.

위의 분류기준에 따라 김정일-김정은 정권에서의 시대어들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김정일 시대 시대어는 <21선-18위-20시-21사>로 나타나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최소 <8선-16위-30시-95사>로 나타난다. 즉 김정은 정권에서 선군차원의 시대어는 2.6배 이상 줄어드는 대신, 시대정신과 사회경제 분야의 시대어들이 각각 1.5배, 4.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에서의 ‘시대성과 혁명성(period and revolution)’이 김정은 정권에서는 ‘시대성과 책임성(period and accountability)’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이전 정권과 다른 정치경제적 의미가 교차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사회경제분야에서의 차이는 보다 두드러진다. 김정일 정권에서 사회경제분야의 시대어는 국가차원에서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소극적 규모에서의 시대어들이 대표한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전 분야·지역들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분야들에서 개인, 기업, 관료,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선군	군사중시, 총대중시, 선군후로, 선군정치, 선군혁명, 선군영도, 선군장정, 총대철학, 총관, 혁명의주력군, 혁명적군인정신, 혁명적군인문화, 군민일치사상, 열차숙소, 아전솜웃, 아전리발, 쪽잠과 췌기밥, 선군혁명대학, 부자부대, 부자중대, 다박술초소, 감나무중대, 들꽃중대, 군민다리, 군민발전소, 군민아리랑, 선군8경, 선군9경, 선군10경, 선군11경, 선군12경	선군시대의청년돌격정신, 선군청년문화, 선군절, 선군총대의고향, 선군조선하늘의 꽃, 선군문화의중심, 백두산총대, 사회주의선경
위대성	주체의 영원한 태양,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 김일성헌법, 수령영생위업, 금수산태양궁전, 태양상, 영생탑, 주체년호, 선군영장, 천출위인상, 천출명장, 수령복, 장군복, 백두산3대장군, 백두산위인, 수령결사옹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금수산태양궁전, 광명성절,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정일애국주의, 김일성-김정일노동계급,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 김일성-김정일혁명학원, 김일성민족의100년사, 주체조선의100년사, 유훈관철전,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
시대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 고난의행군정신, 강계정신, 조국수호정신, 선군혁명승리, 백승의보검, 결사관철, 붉은기정신, 육탄정신, 총폭탄정신, 사회주의본태, 강성대국, 라남의 봉화, 성강의 봉화, 태천의기상, 대흥단기풍, 단숨에, 참신한, 정보산업시대	당의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백두의혁명정신, 백두의칼비람정신, 전우부자 동지부자, 5대교양, 새로운 평양정신, 멸사복무정신, 청년강국, 사회주의문명국, 강성대국, 체육강국, 만화영화대국, 백두산대국, 인재강국, 전략국가, 영웅청년신화, 청년복, 만리마시대, 처녀어머니, 모란봉악단의창조기풍, 백두산대학, 백두산정신, 평양정신, 강원도정신, 문명개화기, 대번영기, 우리국가제일주의, 지식경제시대, 절대병기
사회경제	희천속도, 사회주의선경, 대 규모 토지 정리, 6대명산, 왕차, 영변의 비단치녀, 구장의 양어치녀, 현대판 <홍길동>, 양강의 솜장화, 메주풍경,	최상의 문명, 최우선 · 절대시, 평양속도, 마식령속도, 만리마속도,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속도, 정면돌파전, 콩농사 · 수산 · 축산의 3대열풍, 단풍호, 천도개혁, 이채어경, 새 세기 교육혁명, 인재강국, 전민과학기술인재화, 현대화의 중책,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병기창, 산림복구는 자연과의전쟁, 로라스케이트바람, 체육열풍, 스키바람, 질보장의3대기둥, 과학의심, 승마운동바람, 황금해, 농장도시, 농산 · 축산 · 수산의 3대축, 애국공장, 온실남새열풍, 건설의3대요소, 선편리성 · 선미학성, 전화위복의 기적, 수산혁명의 전위대 · 선봉대,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 자력자강, 자력부강, 자력번영, 번영의 보검, 전략자산, 3대전략자산, 황금산 · 황금벌 · 황금해, 전략적자원, 양어혁명, 인민대

조 선 의 철 갑 상어, 마대전, 함마전, 맞들 이전, 대계도 의기적, 새로 운 천리마속 도, 새로운 평 양번영기, 강 성 대 국 리 상 촌, 강성대국 의 불 보 라, 새 세 기 산업 혁명	중제일주의건축, 제1선참호, 실용화 · 종합화, 애국품, 애국림, 경험교환운동, 애국사업, 경영전략, 기업전략, 재자원화, 국산 화, 명상품 · 명제품, 수입병, 명상표, 최첨단돌파전, 과학기술용 마, 인재농사, 인재중시, 인재관리, 인재전략, 인재육성, 사회주 의기관차, 수자중시, 사회주의바다향기, 사회주의영상, 무쇠철 마, 창조대전, 멋쟁이, 문명의 별천지, 산간문화도시, 노동자궁 전 · 노동자호텔, 사회주의선경마을, 인파십리, 사과바다, 온실 바다, 물고기보물산, 문명비람, 별세상, 건설신화창조, 산악협곡 도시, 광산도시, 농장도시, 청년중시, 자강력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보위, 혁명보위,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친인민 적, 친현실적, 심부름꾼당
---	---

지역,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책임(responsibility), 관계(responsibility), 정서(emotion), 문화(culture), 참여(participation), 호소(appeal) 등을 유인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격려, 금지, 성과 등을 나타내는 시대어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다 포괄적인 범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사회경제 분야에서 각 부문별 · 시대별 정서와 자력정책의 성과, 발전상, 국제화 · 세계화의 표준을 강조하는 시대어들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서 각 시대별 대외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과 정책변화들을 고찰할 수 있는 핵심소재다. 이 때문에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시대어들에서도 김정일 정권에 비해 큰 차이가 발견된다. 김정일 시대에서는 수령결사옹위와 총대정신에 입각한 혁명성과 정신을 강조하는 시대어들이 주를 이룬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국가, 인민, 지식, 자립, 멸사복무 등과 관련된 시대어들이 주를 이룬다. 동시에 사회경제분야의 시대어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 등장하는 시대어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2) <표 1>에서 시대어들은 북한당국이 2000-2021년 간 『노동신문』, 『문학신문』, 『민주조선』, 『문화어학습』, 『조선중앙통신』에서 직접 시대어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자료임.

문명국이나 문명담론의 구조 속에서 전개되거나 이론적 의미를 대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시대어의 역할 그 자체가 사회주의문명국 혹은 문명과 인과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이른바 ‘문명의 보편적 의미가 이전 상태와는 다른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 인 발전’에 있다고 볼 때 더욱 그렇다.³⁾ 이런 의미에서 시대어와 문명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발전전략을 이해하는 데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IV. 김정은 시대 〈시대어〉와 문명의 관계

1. 사회경제분야의 시대어에 따른 정책변화

1) 경제분야의 시대어와 정책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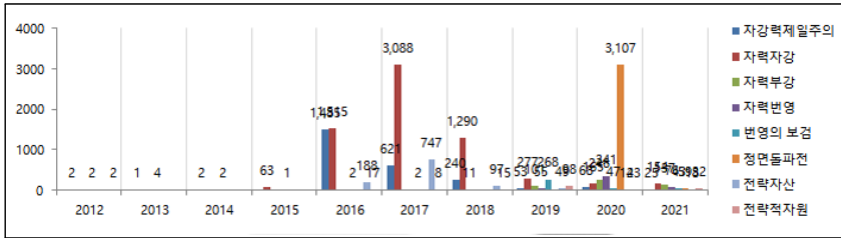
경제부문에서 대표적인 시대어들은 주로 시기별 대외경제환경 및 경제발전노선의 변화에 따른 자립경제의 생태계를 개선·개혁하는 데서 추진된 정책변화들을 반영한다. 이와 관련된 시대어의 유형들을 주요 경제발전노선에 따른 핵심키워드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자력자원, △속도, △자급자족, △브랜드화, △국산화 등이다.

첫째, 〈자력자원〉과 관련된 시대어들은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기간을 중심으로 크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초반에는 △대북제재, △대외경제축소, △경제개발지대정책과 투자침체 등에 따른 구조적 요인들이 경제발전 전략수행의 악재로 등장하면서 자력자강과 자강력제일주의가 자립경제의 핵심노선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중·후반기에는 2018년 비핵화회담-회담불발-경제실패-코로나19로 이어지는 동안 자력부강, 자력번영, 번영의 보검과 같이 국가의 자존감을 유인하는 정책용어들이 시대

3)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b8f64d7b27e441a824ed5372ee6dd91>
(검색일: 2021/6/27).

〈그림 1〉

자력자원관련 시대어와 빈도수 추이(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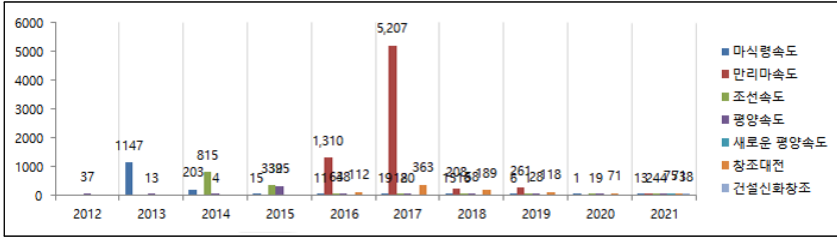


출처: 『노동신문(2012-2021)』 기사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작성

어로 등장한다. 특히 자강력제일주의가 등장하면서 군사적용어로만 사용되던 전략자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한다. 전략자산은 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과 함께 한미 핵전략자산(대륙간탄도미사일, 핵전략폭격기, 핵전략잠수함)을 비난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으나, 2017년부터 〈황금산·황금벌·황금해〉가 3대 전략자산으로 인용되면서 비교차원의 새로운 시대어로 인용되기 시작한다. 2018-19년 비핵화회담 국면에서는 다시 〈과학기술+인재〉를 전략적 자원으로 인용하고 있다.

〈번영의 보검〉은 자력강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9년 비핵화회담 실패 이후 268회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면서 자력자강과 자력부강을 위한 수단으로 크게 강조된다. 2020년에는 정면돌파전(3,107회), 자력번영(341회), 자력부강(246회), 자력자강(165회)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대외경제관계의 축소에 따른 자력강생, 자립경제구축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강한 호소력과 절대적인 자존감을 유인하기 위한 언어적 수단으로서의 시대어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둘째, 〈속도〉와 관련된 시대어들은 일정한 시기 혹은 일정한 목표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제목표수행의 보편적인 수단인 동시에 집단적 동원과 경쟁의식, 양적목표수행을 위한 일반적 수단이다. 이는 이미 체제전환국들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정에서 보편화됐던 추격발전수단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속도와 관련된 시대어들은 주민들의 정신적·집단



출처: 『노동신문(2012-2021)』 기사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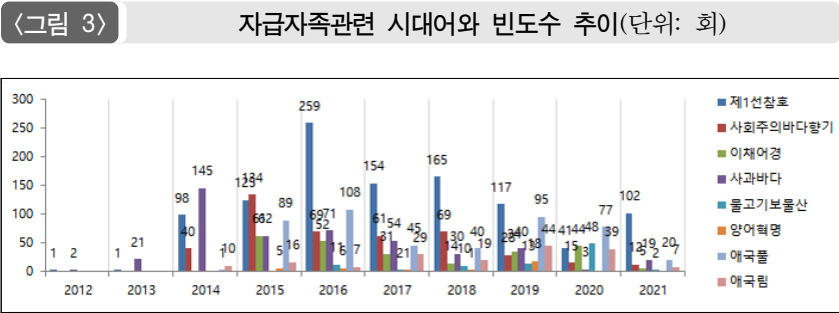
적 동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양적·질적 문제의 양극단에서 일부 갈등하기도 한다.

속도관련 시대어들은 주로 건설·건축분야에서의 시대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계화·현대화의 기술적 문명과 그와 결합된 새로운 건축기술, 속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응용된다. 정권초기에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배경으로 마식령속도가 등장했고, 평양시 여명거리건설과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속도와 평양속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강원도가 관광지역으로 선정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이 추진되면서 만리마속도가 등장했다. 이 사업들은 평양시, 원산시중심의 도시개발과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에 따른 전략과 노선을 반영한다(강채연 2019). 마식령속도에 대한 언급은 경제발전5개년전략기간에 경제전반으로 확장되면서 5,207회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점차 경제건설에서 속도에 대한 문제들이 질적·양적성장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대두되면서 관련 용어들에 대한 언급은 2019년 이후로 크게 줄어들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현장에 대한 시찰과정에서 건설부문의 속도전을 이룬바 ‘날림식’으로 비판하면서부터다(한겨레신문 2019/04/08). 2021년부터 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5)과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은 〈새로운 평양속도〉와 〈건설신화창조〉 등의 새로운 시대어들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속도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속도와 관련된 시대어들은 이제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에 의한 현대화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자급자족>과 관련된 시대어들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분야를 중심으로 등장한다. 2014년부터 북한은 인민군 1월8일수산업소를 본보기로 수산부문의 현대화·신축사업들을 통해 수산부문발전에서 양어 및 수산물가공 현대화를 통한 식생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주의바다향기, 이채어경, 양어혁명, 물고기보물산 등과 같은 시대어들이 등장한다.

2015-2019년 사이에는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1선참호>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종자혁명 △농업과학기술보급 체계 확립(2019~), △농업과학연구기지 구축(2018-2021), △농업부문의 통합경영 및 통합관리체계 도입(2020~), △농업부문의 현대농업 도입 및 기계화추진, △농업-축산-과수분야의 순환식 생산체계 도입(2019~), △온실농장 및 보호농법 확대(2018~)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유엔기구들에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강채연·황인엽 2021, 129-132).⁴⁾ 또한 2015년부터 정부·기업·가정차원에서 염소, 양, 돼지, 토끼,



출처: 『노동신문(2012-2021)』 기사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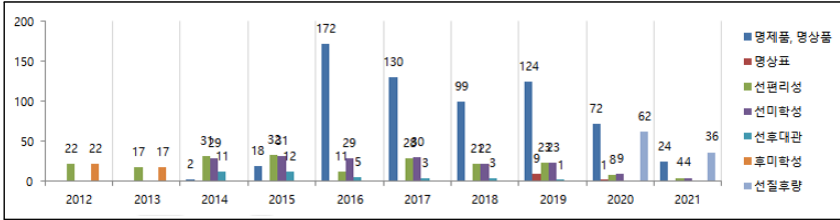
4) 실제로 유엔 SDGs참여차원에서 2021년 북한이 제시한 ‘자발적 국가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식량생산이 495만 톤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원인으로 △자연재해와 회복력 저하, △영농자재 부족, △농업부문의 기계화 저조 등을 지적한 바 있다(DPRK 2021, 15).

젓소 등 집짐승기르기가 영양 및 고기생산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강조되면서 <애국풀>이 등장한다. 애국풀은 축산부문에서 ‘풀과 고기를 바꾼다’는 자급자족의 원칙과 과학기술적 생산/관리문제 등에서 언급되면서 다양화·다종화된 축산부문발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과바다는 강원도 철령의 고산지대에 있는 과수농장을 배경으로 등장하였으나, 2020년에는 백두산지구에서의 사과재배에 성공하면서 과수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견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8년부터 자연재해성 피해가 가중되면서 <산림복구는 자연과의 전쟁>이라는 시대어가 등장하였고, 애국림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앞서 북한은 재난위험감소를 목표로 이미 2014년에 국가비상재해관리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Emergency Disaster Management, SCEDM)를 구축하고 산림 및 수자원보호 정책을 SDGs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의지도 나타내고 있다(DPRK, 14).

넷째, 브랜드화 관련된 시대어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경공업, 건축, 육아 정책, 식품가공, 도시개발 등을 중심으로 국제표준과 규격화의 체계·관리·통합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문제들과 국산화의 질적 문제들과 함께 언급되는 용어들이다. 정권초기에는 평양시중심의 사회문화도시건설에서 <선편리성·후미학성>이 등장했으나⁵⁾ 2014년 후로는 <선편리성·선미학성>이 등장하면서 후미학성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다. 즉 선편리성·후미학성은 2013년 12월 전국 건설부문일군 대 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김정은의 서한을 마감으로 선편리성·선미학성으로 바뀌게 된다(김정은 2013). 동시에 선후대관이 등장한다. 이는 건설 분야에서 선진국의 건축기술과 주체적 미감을 갖춘 김정은 시대 건축기술의 새로운 발전을 유인하는 것이다.

또한 2016년 5개년전략기간에는 기초생활 및 식품가공분야를 중심으로 <명제품·명상품>에 대한 언급이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앞서 명제품·명상품은 원산구두공장에서 신제품으로 매봉산구두(2014.7)가 출시되

5) 2012년 5월 완공을 앞둔 평양시 창전거리 현지지도에서 김정은의 언급으로 등장하였다(노동신문 2012/06/03).



출처: 『노동신문(2012-2021)』 기사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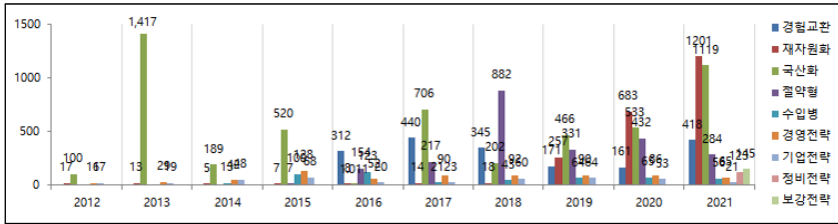
면서 세계적 경쟁력과 표준규격화, 국산화성과를 전국의 경공업공장들에 일반화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시대어다. 또한 국산제품으로 소나무책가방이라는 브랜드가 출시되면서 〈가방사태·가방풍년〉이라는 시대어가 등장하고(조선중앙TV 2021/02/21), 평양제1백화점에 전국의 300여 곳에서 생산된 국산제품들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명상표〉는 2018년 이후로 국산화의 품질관리, 규격화의 중요성, 원산지명의 보호 등과 관련된 규격화의 원칙과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2019년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국산화의 질적문제를 강조하는 선질후향이 새로운 시대어로 등장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산화정책과 새 제품개발운동이 질적성장보다는 양적목표달성에 치우치면서 제품의 안정성, 브랜드보호 및 확장, 품질관리, 상표관리 측면에서 속출된 여러 부작용들과도 귀결된다. 현재 5개년계획수행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미 북한은 상표법을 개정하여 기관기업소,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도 상표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김성호 2013, 67), 세계적인 상품브랜드와 관련된 사료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편이다.

다섯째, 동일선상에서 국산화와 관련된 용어들은 사실상 경제분야의 시대어들이 추구하는 전략과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관리 정책과 자립경제의 과학기술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산화정책은 산업 전반에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원료와 자재의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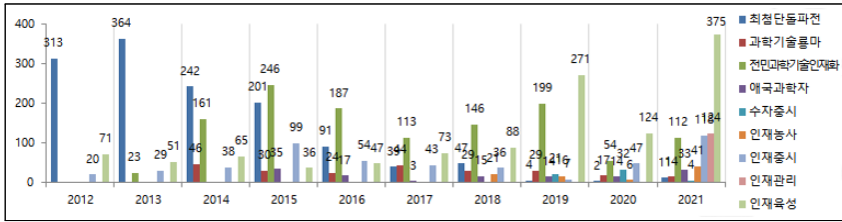
국산화/기업관련 시대어와 빈도수 추이(단위: 회)



출처: 『노동신문(2012-2021)』 기사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작성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다. 그러나 2018년까지도 국산화 정책은 지방단위 공장기업소들에서 형식적이고 본위주의적인 사업 및 경영실태, 투자재원 부재 등으로 인해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노동신문 2018/07/17; 2018/08/21). 2021년 8차당대회 이후로는 경제발전5개년전략과 함께 국산화에 대한 언급이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재자원화에 대한 언급은 2019년 비핵화회담이 불발되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광 및 경제개발지대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배경에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2016-20년 사이에는 5개년전략과 함께 경영전략, 기업전략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나, 2021년에는 크게 감소하는 대신 정비전략과 보강전략이 새로운 정책용어로 등장한다. 이는 5개년계획에서 경제관리의 핵심수단으로 언급됨으로서 양적·질적 문제의 충돌이 여전히 경제발전에서 가장 큰 난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권초기에서 중반에 이르는 동안 과학관련 시대어들은 〈최첨단돌파전〉과 같이 다소 전투적이면서도 추상적 동원력을 가진 시대어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과학기술정보화정책과 함께 등장하여 2015년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특히 교육시스템의 IT화를 시작으로 산업부문의 생태계를 개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정은 경제발전전략의 중축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인재육성, 인재중시, 인재농사와 같은 시대어들이 등장하였다. 2021년에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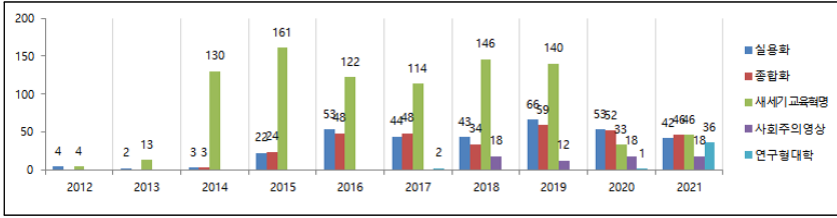
출처: 『노동신문(2012-2021)』 기사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작성

가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그리고 과학기술적 관리체계에 의한 인재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재관리에 이어 인재전략이 등장한다. 북한이 2021년을 <과학의 해>로 규정한 데 따라 인재육성에 대한 언급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육성정책의 5가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분야의 과학기술인재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조직전개력, 경영능력이 뛰어난 경영인재, 관리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이다(노동신문 2021/03/20). 둘째, 인재관리 및 인재육성사업으로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로 과학기술인재를 100% 장악하고, 성중앙기관들과 각 도 과학기술위원회들에서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재정보등록을 완료하도록 한 것이다(노동신문 2021/04/05). 이러한 차원에서 2021년 5월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부문별 전문가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셋째,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오직 연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또한 이러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 일군들의 경제실무문제를 제기하고, 정기적으로 해당분야별 전문지식수준과 결과를 승진이나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인재육성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중앙-지방의 균형적 발전과도 큰 연관성을 가진다. 즉 지방산업 자율성, 금융·조세정책, 행정관리 등 측면에서 자립조건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조되면서 지방단위, 그리고 각 부문별 인재육성정책들이

〈그림 7〉

교육/보건관련 시대어와 빈도수 추이(단위: 회)



출처: 『노동신문(2012-2021)』 기사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작성

2021년 경제정책의 중심과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5개년 전략수행기간(2016-20)에서 경제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됐던 경제관리의 실패와도 관련된다. 즉 기존의 소방대식 인재육성이나 양적목표달성에만 치우쳤던 낡은 사업방식들을 배격하고 자립경제의 생태계를 바꾸는 데서 선진과학기술에 정통한 인재역량의 재정비·육성이 자금이나 자재에 비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 사회분야의 시대어와 정책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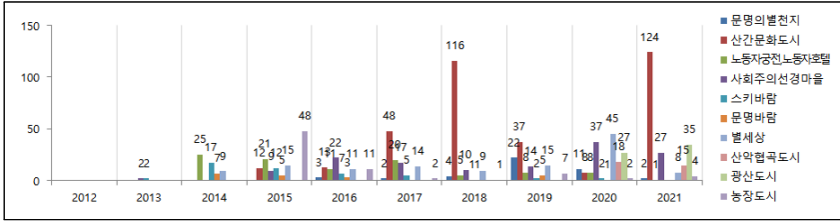
사회분야의 시대어들은 주로 교육, 보건, 문화생활 등의 측면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철학과 선진문명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자존감과 정책패러다임,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참여의지 등을 반영하는 용어들로 나타난다.

우선 첫째, 교육분야에서의 시대어들은 주로 전반적 교육시스템의 개혁, 즉 선진국형의 교육체계·환경·교육역량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분야에서는 선진의학기술 및 국산화 도입을 배경으로 한다.

〈새 세기 교육혁명〉은 2014년 9월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계기로 등장하였다. 앞서 북한은 2012년에 실시된 12년제 의무교육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첫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최신식 교육기관 구축, △원격교육체계 확립, △연구형 대학시스템 구축, △종합대학화, △학점·학제개편 등 선진교육체계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건설한다는 것이

〈그림 8〉

문화생활관련 시대어와 빈도수 추이(단위: 회)



출처: 『노동신문(2012-2021)』 기사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작성

다. 새 세계 교육혁명을 주제로 파생된 시대어들은 △교육의 실용화·종합화·현대화, △교육경쟁열풍, △교원혁명, △관리인재, △기술형·지식형·창조형의 인간, △지식형 근로자 등이다(노동신문 2020/05/31). 동일선상에서 2017년에는 연구형대학이 등장하고, 2021년에 이르러 보다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초기 연구형대학에 대한 언급은 ‘세계일류급대학은 연구형 대학이다’는 주제에서 출발하여 대학교원들이 교육과 연구를 결합하여 실력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되었다(노동신문 2017/09/27).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대학연구기관들과 산업생산단위들 간의 과학기술적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크게 언급되기 시작한다. 교육·연구·산업이 결합된 과학기술적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영상〉은 2018년부터 도·특별시 단위로 본보기 보건산업소공장들을 건설하면서 등장한 시대어다. 또한 평양시 중심의 종합·치과·아동 등 전문병원들을 신축하면서 자주 언급되었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보건산업의 정보화시스템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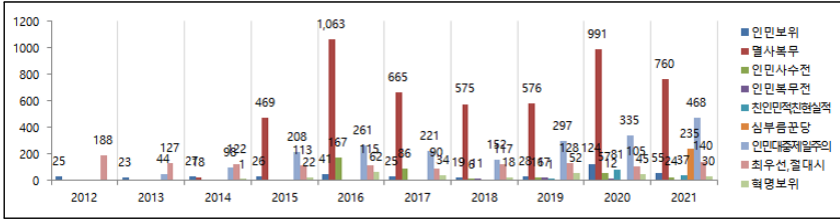
둘째, 문화생활측면에서의 시대어들은 대체로 △사회복지, △관광문화, △도시와 지방의 차이 등을 개선하는 데서 이룩된 성과들을 일반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과 참여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선 〈노동자궁전·노동자호텔〉은 2014년 김정숙방직공장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노동자들의 기숙사를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그들의 숙식조건과

생활조건을 현대화하면서 등장한 시대어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생활환경과 조건에 대한 개선정책이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일반화의 모델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다. 2015년부터 도시-농촌 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 현대적인 문화농촌건설에 대한 목표로부터 <농장도시>가 등장하였다. 또한 강원도를 국가차원의 국제관광도시로 규정하고 외래관광개발과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본보기도시로 추진하면서 인파십리, 스키바람, 문명바람과 같은 시대어들이 등장하였다. 2020년의 대홍수와 자연재해는 황해도·함경도·강원도 중심의 피해복구에 전군·전민을 총동원했고, 이 과정에 산악협곡도시, 광산도시와 같은 시대어들이 등장하였다. 산간문화도시·삼지연시 건설을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백두산지구 관광문화도시건설에 대한 국가의 자존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인민정책과 관련된 시대어들도 대부분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 등장하였다. 주로 관료들의 책임성과 복무정신, 대중 지도원칙에 대한 이론·방법·체계의 핵심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멸사복무, 최우선 절대시, 심부름꾼당 등과 같은 시대어들이다. 관련 시대어들의 빈도수는 2015년 이후로 큰 변화를 나타낸다. <멸사복무>는 5개년전략수행과 함께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고, 2020년 정면돌파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냄으로써 경제발전에서 당 및 국가경제기관들과 관료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월에는 179회로 역대 월별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최우선·절대시>는 2012년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다. 즉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절대적으로 보장하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2014년 사이에 인민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시대어로 언급되었다. 2021년까지도 동 시대어는 연속 멸사복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자연재해국면에서 <인민복무전>이 특별한 시대어로 등장하였고, 2019년에는 <친인민적, 친현실적>이 등장하여 2020년에 가장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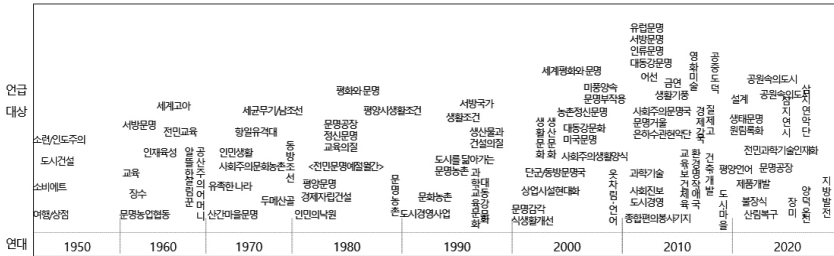
출처: 『노동신문(2012-2021)』 기사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작성

언급되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언급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8차당대회(2021)에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부름꾼당〉이 등장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천수단으로 응용되고 있다. 6월부터는 육아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속에서 어린이 가공식품 확대 및 공급정책들 사이에서 최종대정책이 등장하는 등 인민과 관련된 시대어들과 정책용어들은 현재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동일선상에서 위에서 언급된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의 시대어들도 대부분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표적 시대어들이라고 북한은 주장한다(노동신문 2020/09/06). 즉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의 시대어들은 인민을 매개로 하는 사회경제발전의 통치담론을 경제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세계화, 시장화, 자력정책이 공존하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전략과 노선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6) 〈그림 10〉은 북한 공식매체들과 정기간행물들에서 문명을 주제(제목)로 하는 기사 및 문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하여 각 시기별 핵심정책들을 단순시각화한 모형이다. 해당 자료들은 『민주조선(1951-2019)』, 『노동신문(1950-20)』, 『문학신문(1963-2018)』, 『천리마(1975-2009)』, 『문화어학습(1981-2009)』, 『력사과학(2008)』, 『경제연구(2002)』, 『민족문화유산(2003-2004)』, 『청년문학(2009)』, 『근로자(2010-2018)』, 『김형직사범대학학보(2011-2018)』, 『도시경영(2016-2018)』, 『조선예술(2005)』, 『계획경제(2017)』에서 검색된다. 검색결과 문명과 관련된 기사·문헌들은 총 578건으로



2. 시대어와 문명의 관계, ‘문명강국’의 재해석

1) 문명과 문명강국의 적용대상

북한에서 시대어와 문명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북한문헌들에서 인용되었던 문명의 핵심대상들을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문명에 대한 기술적 정의는 큰 틀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발전정도와 이데올로기적 관점, 물질문화 및 정신적인 것들의 가치차이를 비교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소극적 규모에서 구제도와 신제도의 구조적 환경이나 이행의 비교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진보의 과정이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 문명의 범주나 기준은 그러한 소극적 규모에서의 과정과 결과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북한문헌들에서 다루진 문명의 대상과 메커니즘을 비교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서의 시대어와 문명의 관계를 보다 시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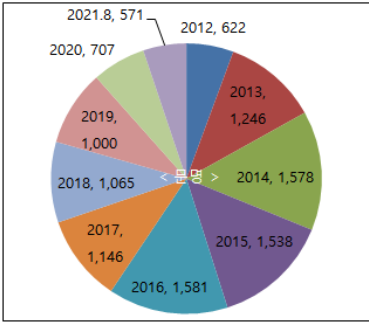
1950년대 문명의 키워드는 주로 소비에트식 도시건설·생활문화의 이

집계된다. 공식 언론매체로 『노동신문』, 『민주조선』, 『문학신문』에서 총 461건(김일성 정권 102건, 김정일 정권 68건, 김정은 정권 291건)의 문명관련 기사제목들이 검색되었고, 그 외 117건(김일성 정권 4건, 김정일 정권 83건, 김정은 정권 30건)은 정기간행물에서 검출된 통계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주로 정기간행물들을 통해 문명과 관련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에서는 정기간행물이나 잡지들보다 공식언론매체들을 통해 문명과 관련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식(移植)측면에서 언급되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가면서 농촌문화혁명, 무상의무교육제, 여성의 사회진출, 정권의 정체성확립(항일) 등을 배경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동방국가’로서의 북한문명이 다뤄진다. 1980년대는 사회경제분야에서의 질적 개선과 평양도시건설을 중심으로 문화생활분야에서의 변화가 문명과의 주요 비교대상이 된다. 1990년대는 시장화와 함께 정신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 과학·교육·문화·건설 분야에서의 변화 등에 대한 요구들이 서방국가들과의 비교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2000년대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비교, △민족주의 강조, △일부 경제개혁정책들의 이행차원에서 문명의 키워드가 공존한다. 즉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문명〉의 키워드는 사회주의문화생활구축, 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생활조건 개선, 도시와 농촌의 차이,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지적·기술적 개선에서 체질개선 등으로 단계적 승화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대외관계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의 전분야의 포괄적인 규모에서 기술진보, 사회진보, 인간진보 등을 매개로 광범하게 문명의 속성이 다뤄진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사회주의문명국이 추구하는 문명의 목표나 범위,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과 노선을 반영한다. 특히 정권초기에는 특정분야들에서 문명이나 사회주의문명국의 관계가 언급되었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다(노동신문 2021/01/20). 이는 사회주의문명국이나 문명강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범주, 즉 문화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문명의 1차 이미지다. 중반기 이후로는 도시, 건축, 환경, 산림, 도덕, 언어, 제품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의 각 분야들에서 ‘문명의 흔적(traces of civilization)’들을 찾거나 연관성으로 일관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한편 문명의 빈도수 추이를 살펴보면, 새로운 경제개발지대정책과 국산화정책이 발표되던 2013년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첫 해인 2016년에는 1,581회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2020년 이후로 문명의 키워드는 〈정면돌파전〉과 코로나위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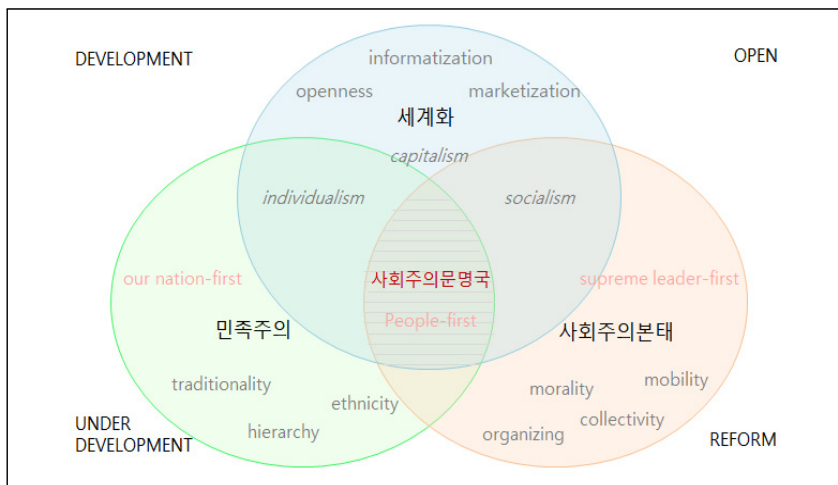


출처: 『노동신문(2012-21.8)』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 목표의 한 부분으로 ‘지식 산업성장으로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조선사회과학자협회 2018/09/29).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주의문명국의 목표가 초기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노동신문」에서도 〈사회주의문명국〉과 관련된 기사들은 △평양시 1만 세대 건설, △인민소비품 생산체계(지퍼·멜리닌수지제품 등), △사회주의 문화(과학, 보건, 체육, 문학예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의 전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는 분명 사회주의문명국이나 문명강국의 범주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만 소극적으로 고찰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분석결과라고 시각이다. 오히려 사회경제전반에서 구시대적 전통이나 제도(구시대적인 발상이나 병폐 등)들을 타파하고 발전전략차원에서 체질개선과 ‘새로운 북한’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개년계획국면에서 자립경제의 내적동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언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북한매체들에서 드러나는 문명의 범위는 사회경제 전반이다. 실제로 2018년 이후 북한매체들에서 사회주의문명국에 대한 언급은 환경개선, 국토관리, 건축기술, 농촌의 종합적기계화, 공장현대화, 최상의 질보장 등과 같이 경제의 각 분야에서 현대화와 정보화, 기계화 등 자립경제의 질적 토대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다(노동신문 2018/07/22; 조선사회과학자협회 2019/04/04; 노동신문 2020/01/15; 2020/11/29; 2021/06/20). 예컨대 미술작품이나 옷차림, 문화생활의 여러 측면은 문명발전의 어느 한 부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과학기술과 생산력, 사회적재부 등이 집약적으로 농축된 인간생활의 총체에서 문명의 높이와 발전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노동신문 2021/05/08).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의 문명국가건설에는 △북핵문제로 인한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 △시장화로 인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 △전통적



출처: 연구자 작성

인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열악한 사회경제 인프라와 산업별 성장 동력의 기술적 재원, △대외관계개선 등과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 정권에서 문명에 대한 욕구는 분명 이전 정권에 비해 훨씬 비약적이고,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매체들에서는 선진국사례나 기술진보, 세계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거부감 없이 인용하거나 비교하고, 변형하려는 의지들이 공식 기사들을 통해 과감없이 소개되는 사실도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2) 시대어-사회주의문명국의 상호관계

시대어는 선진화된 북한과 문명의 실천담론으로서 등장한 언어적 수단의 한 형태다. 김정은 정권 시대어들은 다분히 정치적 메시지들보다는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시대어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도 초기에는 여전히 사회주의와 집단적 경쟁의식, 무조건성과 희생정신 등에 의한 위계적이고 절대적인 명령, 지시, 요구 등을 반영하는

시대어들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중후반기로 가면서 △인민생활, △자립경제의 질적 토대, △도시-지방의 차이, △관료문화개선, △정보화시대의 산업혁명, △세계화·국제화의 핵심정책들을 대변하는 시대정신과 매력, 희망, 욕망, 성과, 책임 등을 추동하는 시대어들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시대 시대어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어들은 과거 추상적이고 혁명적인, 또는 전투적인 메시지들에 비해 보다 유화적인 메시지들로 주민들의 자발적·정신적·물질적 자극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또한 시대어들 속에는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신 도덕성이나 과학기술적 책임과 보상, 차별과 경쟁원리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다분히 정책적이면서도 곧 국가의 내적동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김정은 정권에서 시대어의 변화는 인간-언어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사회경제적 상호작용의 관계로 변화시킨 언어적 수단의 변화이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실천언어가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과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진로나 정체성에 대한 시각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림 12〉에 따르면, 〈사회주의문명국〉의 정체성은 전통적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계화가 교차하는 시점에서의 특정모체이다. 북한의 경우 전통적 민족주의의 대표적 특징은 3가지, (우리)민족성(ethnicity), 위계성(hierarchy), 전통성(traditionality)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조직성(organizing), 집단성(collectivity), 도덕성(morality)을 주창한다. 세계화의 대표적 특징은 개방성(openness), 시장화(marketization), 정보화(informatization)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은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상호 교차하는 시점으로 이는 발전과 저발전(development & underdevelopment), 개혁과 개방(open & reform)이 교차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요약한다면, 기존시스템에 비한 ‘발전과 개혁(development & reform)’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문명국〉, 〈문명강국〉의 정체성인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정부 차원에서 시장화, 경제개혁, 정상화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리사회주의의 정체성인 동시에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담론은 민족주의도 아니고 수령제일주의도 아닌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독자성의 담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을 중심으로 정보화·과학화의 새로운 경제·사회문화모델들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의 체질개선, 통치시스템의 생태계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시대어들은 사회주의문명국의 목표와 지향을 대표하는 언어적 수단인 동시에 또 하나의 통치수단이고 통치전략이 되는 것이다.

V. 결론: 시사점

일반적으로 북한 시대어는 남북한 언어연구의 한 영역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학계나 일반인들 속에서 거의 의미가 외면당하거나 상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시대어도 북한의 언어영역에서 발전의 이행경로들을 거치며 주민동원력과 수령체제의 위계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남북한 언어영역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시대어도 역사, 문화, 언어 등을 넘어 정치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남북관계, 통일정책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처음으로 북한 시대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주의문명국이나 문명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현재 김정은 시대 시대어들은 북한의 전통적인 정치적 위계성·동원성 보다는 국가의 발전전략차원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 심리적 호소와 민족적 자존감을 유인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시대어를 문명의 관계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 정권에서 시대어는 이른바 선군시대어로, 다소 정치적이고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명령체제에 의한 시대성과 혁명성을 나타낸다. 둘째, 김정은 정권 초기에도 선대정권의 ‘정권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시대어들이 수용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회경제분야들에서의 발전과 개혁을 유인하면서 〈시대성과 혁명성〉에서 〈시대성과 책임성〉으로 시대어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김정은 정권의 시대어들은 국가차원보다 정부·개인·기업·관료·지역 등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책임·관계·정서·문화·참여·호소 등을 유인하면서도 나뉘대로 독려·금지·성과 등을 포섭하는 시대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유화적인 메시지들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이상(以上)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정권초기에서 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시작으로 다소 추상적이고 전투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의미가 강한 시대어들이 많이 등장했다면, 중후반에서는 비핵화회담, 경제발전5개년계획으로 이어지는 동안 실리를 중시하는 시대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산업·기업 간 기술협력, △인민중심·전문화된 관료개혁, △선진국형의 교육문화·생활문화, △국제표준에 의한 상품경쟁력 등과 같이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시스템개혁을 반영하는 시대어들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기존의 추상적 용어에서 실리와 개혁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 정권과의 확실한 차이점이다.

분석결과들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시대적 전통이나 시스템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민족성과 사회주의본태를 살리면서도 세계화·정보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북한 발전전략이다. 이를 위해 인민중심의 정책, 참여, 동원, 자극이 필요했고, 이러한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시대어의 역할이다. 둘째, 오랜 시장화로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주민들의 문화의식수준에 부합하는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한 체제선전이나 홍보측면보다는 물질적 자극에 의한 주체적 참여와 경쟁력을 유인하고 실질적인 민생개선이 환영받을 수 있는 구조, 즉 국가와 시장의 공존 가능한 기술적, 구조적, 환경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것이 선진국형의 문명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 이전 양적성장의 사회경제시스템에서 질적 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김정은의 목표다. 넷째, 위의 전략수행을 위해 북한은 2018년 이후로 유엔

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북한식 NDGs(National Development Goals)로 변형·개발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협력으로의 전환이 국가경제발전, 또는 과학적 자립경제의 개발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투명성과 과학성을 갖춘 국가경제시스템의 정보화와 통계화, 그에 따른 기술협력을 북한의 2030지속가능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주변국은 물론 한국과의 기술협력은 보다 중요한 협력대상으로 대두될 수 있다. 기존의 선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협력에서 개발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부차원, 지역차원, 기업차원, 부문별 개발협력에 무게를 두고 소프트 개발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한계를 보다 치밀하게 관찰하고 북한의 발전전략과 연계된 교류와 협력의 공간들을 찾아내는 것이 연구자들의 몫이다. 다만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국가차원의 시대어라는 언어적 수단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을 국가발전전략의 차원에서 확인한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사회경제문화의 실제 또는 공간들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사회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최초투고일 : 2021. 12. 31

논문심사일 : 2022. 02. 21

게재확정일 : 2022. 03. 23

참고문헌

- 강민정. 2015. “김정은 체제 북한 시에 드러난 사회주의 문명국의 함의.” 『인문학논총』 제37권, 145-174.
- 강채연 · 황인엽. 2021. “북한의 발전전략과 SDGs-NDGs이행의 시사점: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제3호, 111-147.
- 강채연. 2019.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관광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서울: 통일부.
- 김상배 · 김진영 · 유지연. 2012.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와 정보화전략』.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성수. 2018. “상상의 ‘사회주의문명국’공동체: 김정은 시대(2012-2018) 북한 인민의 꿈과 문학적 상상력.” 『21세기 문학』 제22권 제3호, 25-31.
- _____. 2018.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한 청년 지도자의 이상과 현실: 동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 『미술세계』 제71권.
- _____. 2015. “김정은 시대 4년, 북한문학 동향과 전망: 「조선문학」 「문학신문」에 나타난 상상의 ‘사회주의문명국’ 공동체 비판.”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10월 5일).
- 김성호. 2013. 『상표법과 세계상표 일화』.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성훈. 2019. “문명한 공장.” 『노동신문』(11월 27일).
- 김정은. 2013.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노동신문』(12월 8일).
- 노동신문, 2001/03/01. “로동당시대에 생겨난 시대어를 빛내여주시여.”
- _____. 2003/10/18. “빛나는 시대어.”
- _____. 2004/02/24. “선군시대어를 놓고.”
- _____. 2004/02/22. “선군이 꽃피운 시대어들.”
- _____. 2004/06/19. “불멸의 시대어.”
- _____. 2004/08/21. “선군시문학의 시대어 형상체계.”
- _____. 2010/12/24. “시대어에 비긴 숭고한 뜻.”
- _____. 2011/02/11. “대대손손 전해갈 시대어.”
- _____. 2011/09/28. “시대어와 강성부흥의 래일.”
- _____. 2012/02/18. “만대에 길이 빛날 선군조선의 시대어.”
- _____. 2012/06/03. “선 편리성, 후 미확성.”
- _____. 2018/07/1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청진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 _____. 2018/08/2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묘향산의료기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
- _____. 2004/05/27. “〈참신한〉이라는 시대어를 놓고.”
- _____. 2021/01/20. “사회주의문화의 새로운 개화기를.”
- _____. 2021/03/20. “인재관리, 인재육성사업을 혁신하여 발전과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 가자.”
- _____. 2021/04/05.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를 과학으로 들고일어나는 해로 만들자.”
- _____. 2021/05/08. “건축에는 시대의 사상과 문명의 높이가 비껴있다.”
- _____. 2021/08/07. “새로운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 노지원. 2019. “‘날림식 안 된다’ 북 김정은, 원산관광지구 찾아 완공 시점 6개월 늦춰.” 『한겨레신문』(4월 8일).
- 리국철. 2017.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이 나아갈 앞길을 밝힌 불멸의 지침.” 『노동신문』(9월 27일).
- 리성렬. 2020.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에 넘치는 인민의 행복.” 『노동신문』(1월 15일).
- 리호경. 2006. “장군님과 선군시대어.” 『문화어학습』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림정호. 2018. “현대문명이 응축된 리상농장으로.” 『노동신문』(7월 22일).
- 량선옥. 2020. “사회주의문명건설과 도덕.” 『노동신문』(11월 29일).
- 명주혁. 2020.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더불어 빛나는 시대어들.” 『노동신문』(9월 6일).
- 문학신문, 2004/08/21. “선군시대에 년대를 이어 태어난 자랑스러운 시대어.”
- 박영자·조정아·홍제환·정은이·정은미·이석기·전영선·강호제.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 V. N. 블로쉬노프 저. 송기한 역. 2005. 『언어와 이데올로기』. 파주: 푸른사상사.
- 시사저널. 2018/01/29. “슈뢰더 ‘북한은 문명국가가 아니다. 그래도 대화는 이어가야.’”
- 신종섭. 1997. “통일시대의 언어.” 『철학연구』, 97-118.
- 신 철. 2021. “생활환경을 깨끗하고 문명하게.” 『노동신문』(6월 20일).
- 알렉산드르 아파나시예비치 포테브나 저. 김민수·조준래 역. 2016. 『사고와 언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우윤식. 2006. 『언어와 인간』.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우철남. 2006. “총대어휘와 그 의미.” 『문화어학습』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은정철. 2020.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시대어들.” 『노동신문』(5월 31일).
- 정정혜 · 이양. 2015. “시대어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연구』 제74집, 283-300.
- 정영철. 2017.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의 변화.” 『문화정책논총』 제31집 2호, 288-305.
- 정태순. 2006. “단어조성의 측면에서 본 선군시대어.” 『문화어학습』 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사회과학자협회. 2018. “문명강국은 사회주의강국의 중요한 지표.” 『주체』 (9월 29일).
- 조선사회과학자협회. 2019.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과업.” 『주체』 (4월 4일).
- 주지휘. 2007. “선군시대어의 발생과 그 특성.” 『조선어문』 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진정철. 2004. “단어조성의 측면에서 본 선군시대어: 력사주체의 문학작품에서 시대어가 노는 형상적 기능.” 『문화어학습』 제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한재현. 2016.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과 근대성의 함의.” 『시민과 세계』 통권 제29호, 161-179.
- 채희원. 2013. 『선군시대어』. 평양: 외국문출판사.

- Austin J. L. 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rett, L. F., and Russell J. A. 1999. “The Structure of Current Affect: Controversies and Emerging Consensus.” *Psychological Science*, 8(1): 10-14.
- DPRK,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 Martijn Goudbeek, Jean Philippe Goldman, and Klaus R. Scherer. 2009. “Emotion Dimensions and Formant Position.” *Brighton, UK: 10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peech*, 1575-1578.
- Marc Schroder, Roddy Cowie, Ellen Douglas, Machel Westerdijk, and StanC, A. M. Gielen. 2001. “Acoustic Correlates of Emotion Dimensions in View of Speech Synthesis.” *Scandinavia: 7th European Conference*

on Speech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87-90.

『경제연구』

『계획경제』

『근로자』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형직사범대학학보』

『노동신문』

『도시경영』

『력사과학』

『민주조선』

『문학신문』

『문화어학습』

『민족문화유산』

The Ideal and Reality of a Civilized Power Viewed as a “Era Language” of the Kim Jong-un Era: The Path of a Socialist Civilization State*

Kang, Chaeyeon

Sung Kyun Kwan University

| ABSTRACT |

This article examines a “era language” of the Kim Jong-un era in the discourse of the civilized power and reinterprets the path of the socialist civilization stat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Kim Jong-il regime, the era language is a era language of the military first, which showed a sense of epoch and revolutionariness by a rather hierarchical command system, but under the Kim Jong-un regime, the era languages representing the times and responsibility in socioeconomic fields account for the majority.

Second, the distribution of the era languages in a line that reflects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system reform while attracting responsibility, relationship, emotion, culture, participation, and appeal among various participants such as the government, individuals, companies, bureaucrats, and regions.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ies and enterprises, △People-centered and specialized bureaucratic reform, △Educational culture and living culture of advanced countries, △Product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rd, The goal of the current socialist civilized state is to break away from the rigidity of existing traditions and systems and to lay a new socioeconomic foundation suitable for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while preserving nationality and socialism. For this, people-centered policies, participation, mobilization, and stimulation

were needed, and it is the role of a era language to order these roles.

This starts from the leadership's recognition that a paradigm shift in development that matches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changed in marketization and the level of cultur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can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Rather than simply propagating or promoting the system, it is trying to attract a structure that induces active participation and competitiveness through material stimulation and welcomes substantial improvement in people's livelihood, that is, technologic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allow the co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market.

- Keywords: era language, civilization, socialist civilized state, socioeconomic,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